

# 명품도시 조성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군산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

군산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2018년도 국가예산 1조 103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에서부터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노력해온 군산시의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에서는 올해에도 역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공고히 하고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군산연결도로 완전개통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군산군도 내부도로개설, 선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 고군산 내 관광기

반 시설 조성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 사업과 함께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근대항만 역사관 건립사업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군산의 성장·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지속

적인 발굴을 위해, 2월 중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가예산 신규발굴 및 확보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2019년도에도 국제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2007년 5,179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예산을 지난 10년 간 예산은 투쟁이다는 각오로 두 배로 끌어올린 군산시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관 기자

# 295건 화재진압·684명 구조 5353명 응급환자 병원 이송

## 익산소방서, 2017년 화재·구조·구급 통계 분석 발표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지난해 화재·구조·구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95건의 화재진압과 684명의 인명구조, 5,353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95건으로 전년 대비 23건(4.8%) 증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5명(사망 2, 부상 13)이 발생해 전년 대비 3명(25%) 증가, 재산피해는 3,53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6백만(115%) 증가했다. 화재발생 원인으로 부주의가 135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63건(21.4%), 기계적 요인 38건(12.9%), 화학적 요인 6건(2%) 순으로 발생했다. 구조 건수는 전년 대비 출동 건수는 5,027건으로 119건(2.3%) 감소하였고, 구조요원도 684명으로 전년 대비 136명(16.5%) 감소했다. 통계 분석 결과 작년 대비 발집제거, 화재발생 원인요로 부주의가 135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63건(21.4%), 기계적 요인 38건(12.9%), 화학적 요인 6건(2%) 순으로 발생했다. 구조 건수는 전년 대비 출동 건수는 5,027건으로 119건(2.3%) 감소하였고, 구조요원도 684명으로 전년 대비 136명(16.5%) 감소했다. 통계 분석 결과 작년 대비 발집제거,

자연재해, 추락사고 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속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급 건수는 전년 대비 출동 건수는 17,072건으로 190건(2.3%) 증가하였고, 이송인원은 5,353명으로 전년 대비 52명(1.0%) 증가했다. 환자 발생 유형별 현황은 질병(6,974명 62.4%)으로 가장 높고, 사고부상(2,401명, 21.4%), 교통사고(1,502명 13.4%), 비의상성손상(177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춘 서장은 "분석한 소방 활동 내용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훈련 강화를 통해 고품질의 소방 서비스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올해로 6번째 운영되는 '학습동기부여 멘토링 동계캠프(이하 캠프)'는 차별화된 진로진학 학습 캠프로 참가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전해져 매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유익한 방학 캠프로 자리 잡았다.

## 군산시, 예비 중3학생 학습동기부여 멘토링 캠프 운영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관내 예비 중3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학습동기부여 멘토링 동계캠프(이하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6번째 운영되는 캠프는 다른 캠프와 차별화된 진로진학 학습 캠프로 참가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전해져 매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유익한 방학 캠프로 자리 잡았다. 이번 캠프는 진북외고 창조관에서 1기 120명(1.10.~1.12.)과 2기 120명(1.17.~1.19.)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여 대상이 예비 중3학생임을 감안하여 학습자세 변화와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 주도 학습 훈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설정과 학습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국·영·수 과목별 학습법, 구술연결과 창의 논술 실습, 진로로드맵작성, 진로진학 특강과 함께 군산글로벌리더 아카데미(주말학습)에서 배출된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12명이 멘토로 나서 학습 및 진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급 학

교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와 소통하는 방법, 자녀의 진로선택시 전략과 학습법 등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멘토 대학생들의 컨설팅 시현에 대비하는 과목별 학습 전략, 자신의 진로탐색 등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진로 학습관련 세부프로그램이 진행돼 이번 캠프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진로 선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 익산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한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익산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 중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자임에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안내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세대는 TV수신료, 전기, 통신,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일괄신청하면 된다. /익산=정양원기자

## 원광대, 서남대 특별편입학 다른 범부처별 대응방안 마련

원광대학교는 지난 8일 서남대 특별편입학 1차 원서접수가 0.26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하고,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차 원서접수를 앞둔 가운데 기존 재학생과 편입생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남대학 폐쇄 조치에 재학생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특별편입학을 진행한 원광대는 기획처, 교무처, 입학관리처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서가 기존 재학생과 편입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점검에 들어갔다. 2차 원서접수가 끝나고, 2월 14일 특별편입 최종 등록 인원에 따라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통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결정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 원광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변승재 교수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원광대학교병원 (병원장 최두영) 이식혈관외과 변승재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됐다.

인명사전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다. 변승재 교수는 2007년부터 대동맥 및 말초 동맥 질환과 하지정맥류와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수술과 시술을 혼재하는 치료법을 국내 및 세계 학회에 많이 소개한 선구자로서 1년에 30회 이상의 학회 발표를 하며 혈관질환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매진하여 2006년 American Journal of Pathology (IF 4.766)에 논문과 2015년 대한외과학회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 익산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내달 1일부터 유료화

익산시가 중앙동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이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영주차장을 오는 2월 1일부터 유료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로 운영 중인 중앙동 공영주차장에 장기 고정주차로 인해 실제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 등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 통행 등에 큰 불편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월 31일 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이용요금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최초 30분 이내는 무료이며 초과 30분 마다 500원이 부과되고 19시 이후나 토·일·공휴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기자